

# 2014. 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4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4.4.29.	대전MBC 대회의실	8/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장동환, 김형주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욱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서영석 사업국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5	-	-	11	-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6	5	-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7건	7 건	3월
보도	6.4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을 포함해 후보자 관련 정보 등을 뉴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길	지방선거 후보자 관련 정보 뉴스에서 계속 취급하고 있음.	3월
교양	교황의 충청남도 방문 지역 소개필요	교황 방문지역 솔피성지, 해미읍성 등 소개	3월
교양	3.1절 특집 ‘아버지의 일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람.	‘아버지의 일기’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게재함.	3월
보도	지방선거 출마한 현직 기관장 선거운동 감시	보도를 통해 현직 기관장의 선거운동 감시자 역할하고 있음.	3월
보도	뉴스 자막 품격에 맞게 뽑도록	뉴스 자막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처리	3월
교양	아나운서 멘트 ‘..같다’ 표현 피하도록	교육을 통해 주지해서 ‘..같다’ 표현 피하고 있음	3월
보도	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 단독보도 취지살려 후속보도 이어지길	세종시 아파트 부실시공 연이어 후속 취재 보도 방송함.	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 「무산위기 대전 유니온스퀘어 / 기로에 선 가로림만」 편(4월 4일)을 시청하였다. 이번 시사플러스에서는 ‘대전 유니온스퀘어’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조성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을 제공하는 유니온스퀘어 조성계획을 둘러싸고 관련 단체들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방송에서는 유니온스퀘어 조성을 찬성하는 인근 지역민, 해당 사업주체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과,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운동 연합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 다각적인 시각을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 지역(하남)의 유니온스퀘어 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대전 유니온스퀘어의 문제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생태계 파괴와 새로운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계획에 대한 방송에서도 역시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찬반의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다만 본 방송이 조력발전소 계획과 관련한 의견 대립의 현 상황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p>격려에 감사하다. ‘무산위기 대전 유니온스퀘어, 기로에 선 가로림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라는 양면성을 지닌 지역 의제를 다루고 있다. 찬반이 대립되는 각계 계층의 의견들을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으며, 어떤 해법이 있는가를 제작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공간 다큐멘터리 그 곳(4월7일)에서는 「청춘, 꿈을 향해~ - 화순 전남 학숙」편을 방송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화순 전남 학숙을 방문하여 전남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학숙 생활’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내기부터 재학생들까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시청자의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된 시설들의 이야기와 사용자들의 인터뷰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전달되었다. 학숙 시설을 이용하는</p>	<p>‘공간 다큐 그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프로그램의 소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휴먼다큐를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우리 삶의 현장들을 인물위주에서 벗어나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바라보며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지역사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사람들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이 이루어졌으며, 적절한 질문과 대답은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 방송은 새내기들의 꾸밈없는 인터뷰를 통해 특유의 발랄함과 긍정적인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이 ‘학숙 생활’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교양	<p>건강플러스 「노인치아관리」 편(4월 12일)을 시청하였다. 이번 주 건강플러스에서는 노년의 치아 건강의 중요성과 노인 치아 관리를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 치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생리통에 좋은 음식인 부추, 대두, 미역을 사용한 요리를 소개해 주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음식의 효능을 설명해 주어 정보의 신뢰도가 높게 느껴졌다. 또한 어느 요리프로그램 못지않게 친절한 설명과 시각 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어서 방송된 ‘TV 주치의’에서는 스튜디오에 방문한 치과 전문의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노인 치아 관리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방송 구성에 있어서도 ‘치과 질환’과 ‘대책’, ‘예방’의 3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어 건강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 방송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 해주는 부분은 다른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오덕성).</p>	<p>칭찬에 감사하다. ‘건강플러스’는 지역의 시청자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건강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에 편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제작에 임하겠다.</p>	편성 수용
보도	<p>요즘 대전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노선 소외지역에서의 반감과 도시철도 공사방식을 놓고 이해당사자와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다. 뉴스를 시청하면서 이러한 기사는 다루어지고 있지만 심층적인 취재의 진단 리포트물을 방송해주길 바란다</p>	<p>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 등으로 관련 아이템이 불방되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p>	보도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박희원).		
보도	<p>시사광장 4월 6일 방송은 「경선방식 논란, 불붙은 6. 4 지방선거」 라는 제목 하에 지방선거 경선방식을 다루었다. 진행자의 진행솜씨는 매끄러워 시청하기에 좋았다. 아쉬운 점은 진행자의 멘트가 패널들보다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패널들과의 진행속도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사전에 녹화된 프로그램이기에 진행자의 질문뿐만 아니라 패널들의 답변도 요지를 자막으로 뽑아 제공을 해준다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송인덕).</p>	<p>진행속도 등을 맞추는데 유념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보도	<p>시사광장에서 교육감 선거를 다루었다. 4월 13일 방송된 프로그램 제목은 「교육감 선거도 이념대결, 왜?」 이다. 제목으로만 봐서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정작 토론 프로그램 내용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루고 있다.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았다. 내용에 맞는 제목을 선정해주길 바란다. 패널로 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학부모대표 등이 출연하였다. 학부모 입장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학부모 2명이 각각 출연해야 찬반의 토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송인덕).</p>	<p>제목 선정시 유의하겠다.</p>	<p>보도 수용</p>
보도	<p>세월호 참사 사건을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유수 언론들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취재하여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사람 중심의 뉴스가 긴요한 시점이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는 전국뉴스로 대전MBC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더라도 대전MBC도 국민을 위한, 지역 주민을 위한 뉴스 제작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사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송인덕).</p>	<p>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더 유의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기본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 각 부문에서 서로 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면 어떨까?(김영광)	좋은 의견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시스템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가슴아픈 사건이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적극 다루려고 하고 있다.	편성 수용
보도	시사광장은 대전MBC의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이다. 토론 프로그램으로 기획의도를 살릴려면 입장 차이가 있는 A, B 패널이 출연하여 갑론을박을 펼쳐야 프로그램 긴장도 생기고 시청하는 입장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의견이 같은 패널이 출연하여 좌담식으로, 또는 일방적 의견전달로 정책의 홍보의 장으로 진행을 하면 맥이 빠지고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기능도 못살린다. 열띤 토론이 될 수 있게 주제를 잘 선정하고 그에 맞는 패널도 잘 선정해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해 주길 바란다(김경숙).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패널 선정 시 유의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YWCA에 몸담고 있어서 선거에 관련된 사항 중 여성, 소비자,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에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돌리게 된다.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취재에 있어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해 보는 뉴스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기를 바란다(유덕순).	후보자 공약을 면밀 점검하는 뉴스를 마련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에서 「무산위기 대전 유니온스퀘어」(4월 4일)를 방송하였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결로 인한 찬반 입장을 시민단체와 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담고 있었다. 구봉지구 유니온스퀘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상인 등의 의견이 찬성하는 측보다 더 많이 편집을 해 균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김명수).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항상 균형성, 공정성을 최우선 모토로 삼고 있다. 균형성이 지켜지지 않은 인상이었다면 앞으로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겠다.	편성 의견참고

